

최진실 자살 충격

왜 죽음 택했나

이혼 우울증에 사채설 고통 겹친 듯

2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된 최진실은 평소 감정변화가 심한 조울증에 시달려왔으며 최근의 '사채설'로 많이 힘들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최진실은 5년 전 조성민 씨와 이혼한 뒤 약간의 우울증 증세를 보여왔으며 최근에는 외로움을 호소하는 등 고충을 털어냈다. 이런 탓에 최진실은 오랜 시간 신경안정제를 복용해오다 6개월 전부터는 양을 늘렸다.

두 자녀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와 함께 톱 연예인들이 겪는 '위상 추락'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브리핑에서 설명했다.

연예계 관계자들도 최진실이 오래 전부터 한동안은 활기차고 의욕에 넘치다가도 급격하게 우울해지는 조울증 증세를 보여왔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조성민의 재혼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고통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최진실이 최근에도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태였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진실은 1일 CF 촬영을 하면서 '내 모습이 예전같지 않나'는 말을 하며 우울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실은 이날 '얼굴이 안 좋다'며 CF 촬영을 도중에 중단하고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매니저, 스태프와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내 얼굴이 예전같지 않나", "내가 옛날에 비해 못하냐"는 말을 반복하며 자신이 전성기에 비해 나이가 든 현실에 대해 개탄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오랜 기간 신경 안정제 복용 최근 양 늘려

측근들 "25억 사채설에 무척 괴로워했다"

전언이다.

참석자들은 그러나 "5시간 여에 걸쳐 술은 소주 3병을 시킨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최진실 씨는 술에 취한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집에 가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진실은 최근 일명 '25억 원 사채설'로 무척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계 관계자들은 "최진실이 최근 사채설 유포로 너무나 힘들어했다. 정선희에

대한 우정이 이런 식으로 '매도되냐'며 무척 괴로워했다"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았다.

최진실의 소속사 SBM의 서상욱 대표는

"최진실이 사채설 때문에 정말 힘들어했다. 특히 최근 불잡힌 용의자 측이 어떻게 연락처를 알고 '선제해달라'고 계속 연락을 해오면서 이중 삼중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 대표는 "그렇다고 해도 자살



최진실씨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초경찰서 양재호 형사과장이 2일 텔런트 최진실씨의 자살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발표 남은 의문점

토퍼스트 최진실씨의 사망 사건은 '괴소문에 시달린 최씨의 자살'이라는 경찰의 1차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석연치 않은 의문점을 남겨놓고 있다.

우선 인터넷 등을 통해 떠돌았던 악성 루머, 이른바 '사채 괴담'에 대한 궁금궁금이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채 괴담이란 최씨가 안씨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않는 안씨에게 '죽이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가해 결국 안씨를 자살로 내몰았다는 내용의 악성 루머로, 인터넷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해 급속도로 유포됐다.

최씨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최씨가 술에 취한 채 귀가해 가족들에게 이른바 '사채 괴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뒤 욕실에 들어가 스스로 목

숨을 끊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단순히 '뜬소문'인지, 아니면 일부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는지 등 소문의 실체에 관해서 경찰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인지 최씨와 안씨 사이에 실제로 돈 거래가 있었는지, 안씨 유족이 주장하는 대로 사채업자가 안씨를 납치·감금한 적이 있는지, 납치가 사실이라면 최씨가 이 과정에 개입한 적이 있는지 등의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이다.

안씨 사망 사건을 맡은 서울 노원경찰서 측은 "안씨의 누나와 아내인 정선희씨를 조사하면서 최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적

이 없다"고 밝혔으나 모든 의혹이 정리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스태프 연예인들의 잇따른 자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의 해소 차원에서라도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루머와 실제 두 사람의 관련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씨 자살 동기에 대한 이견도 분분하다. 최씨가 2004년 이혼한 이후 약간의 우울증 증세를 보여 신경안정제를 복용해왔고 자녀 양육 문제, 연예계 위상 추락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많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

다. 최씨가 정작 가족에게는 유서 등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메이크업 담당자에게만 자녀를 부탁한다는 내용으로 자살을 암시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도 의문을 낳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실시,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최씨의 사채설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도 모 증권회사 직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한 데 이어 괴담의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려는 등 비극의 씨앗이 된 부분별한 '인터넷 괴담'에 대한 엄단 의지도 밝히고 있다.

20년간 정상 지킨 연예계 톱스타 이혼...재기...루머... 드라마 같은 삶

최진실은 누구

지난 1988년 MBC TV 드라마 '조선왕조 500년-한중록'으로 연기 생활을 시작한 텔런트 최진실(40)은 청춘 스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후 변신을 거듭하며 졸풍 연예계 정상권을 지킨 톱스타다.

가 스무살에 연예계에 데뷔한 최진실은 감각적인 외모와 발랄한 이미지를 앞세워 데뷔 초부터 짝짝 스타로 주목받았다.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1990년), '미스터 맘마'(1992년) 등과 드라마 '우리들의 천국'(1990년)에서 상큼한 연기를 펼쳤으며, 특히 최수종과 함께 출연한 인기 드라마 '질투'(1992년)를 통해 전국민의 사랑을 받는 청춘 스타로 발돋움했다.

그는 TV 광고에서도 매력적인 모습을 선보이며 'CF 요정'으로 대단한 사랑을 받았다. 모 가전제품 CF에서 싱그러운 표정으로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예요"라고 말한 인상적인 코멘트로 대단한 화제를 일으켰다.

출연작도 줄줄이 히트했다.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1996년), 영화 '마누라 죽이기'(1994년), '편지'(1997년) 등 그가 출연한 작품은 거의 예외 없이 흥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최진실의 연예계 생활과 사생활은 오르막과 내리막을 거듭하는 등 순탄치만은 않았고 좋지않은 소식으로 자주 세간의 입방아에 올랐다.

1994년 최진실의 전 매니저였던 배병수 씨가 살해되는 사건은 연예계 전체에도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최진실은 2000년 프로야구계 톱스타인 조성민과의 결혼과 이혼으로 다시 한 번 이목을 집중시켰다.

결국 최진실은 2004년 9월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고 조성민과의 결혼생활을 마무리했다.

이혼으로 인해 그는 모든 연예활동을 접는 등 인기 인생에 큰 타격을 받았지만 이혼의 아픔을 딛고 2005년 KBS 2TV 드라마 '장밋빛 인생'으로 재기에 성공한다.

2007년 MBC TV 드라마 '나쁜 여자 착한 여자'를 통해 데뷔 후 처음으로 일일극에 출연하며 꾸준한 연기 변신을 시도했다.

최근에는 자녀의 성을 엄마의 성으로 바꿔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지난 1월 법원에 성변경청구 신청을 냈으며 5월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인에 따라 7살 아들과 5살 딸의 성과 본을 자신의 것으로 고쳤다.



최진실 주연 드라마 '질투' '장밋빛 인생' '내 인생의 마지막 스캔들' (위로부터). /연합뉴스

인터넷 떠돈 '사채 괴담'의 진실은?

이 없다"고 밝혔으나 모든 의혹이 정리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스태프 연예인들의 잇따른 자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의 해소 차원에서라도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루머와 실제 두 사람의 관련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씨 자살 동기에 대한 이견도 분분하다. 최씨가 2004년 이혼한 이후 약간의 우울증 증세를 보여 신경안정제를 복용해왔고 자녀 양육 문제, 연예계 위상 추락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많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

다. 최씨가 정작 가족에게는 유서 등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메이크업 담당자에게만 자녀를 부탁한다는 내용으로 자살을 암시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도 의문을 낳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실시,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최씨의 사채설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도 모 증권회사 직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한 데 이어 괴담의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려는 등 비극의 씨앗이 된 부분별한 '인터넷 괴담'에 대한 엄단 의지도 밝히고 있다.

경찰 "안재환 자살과 전혀 관련 없다"

안재환씨 자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노원경찰서 측은 2일 "현재로서는 안씨의 자살과 최씨와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안씨 사건을 조사하면서 최씨와 전화통화 한 번 한 적 없고 얼굴을 본 적도 없다"며 "최씨를 조사할 계획도 없었으니 최씨의 사망과 안씨 사건을 연결짓지 말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또 "정선희씨도 2차례 조사했는데 최

씨에 대해 물어보지도, 얘기하지도 않았다. 경찰 조서에 최씨 이름 석 자 올라온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안씨가 숨지기 전 사채업자들에게 납치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범죄혐의를 두고 수사를 하는게 아니라 단지 안미선씨가 제기한 의문점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사채는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라 우리가 깊게 수사하기도 뭐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제 권련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Real estate listings table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agent info.

기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쓰는 물온수 보일러 매트!! 한달 전기료 6,000원~. Advertisement for a water heater mat with product images and pricing.